

퇴근길 AI 대화가 창업 아이디어가 되다

과거를 부정하던 내가 과거에서 미래를 꺼내기까지



하루 40분, 흩어진 경험들이 별자리가 되는 시간



사범대 환경교육과
(전공)

모든 것을 부정했던 시간

이직과 가정의 시련.
무너진 자존감.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은 다 쓸모없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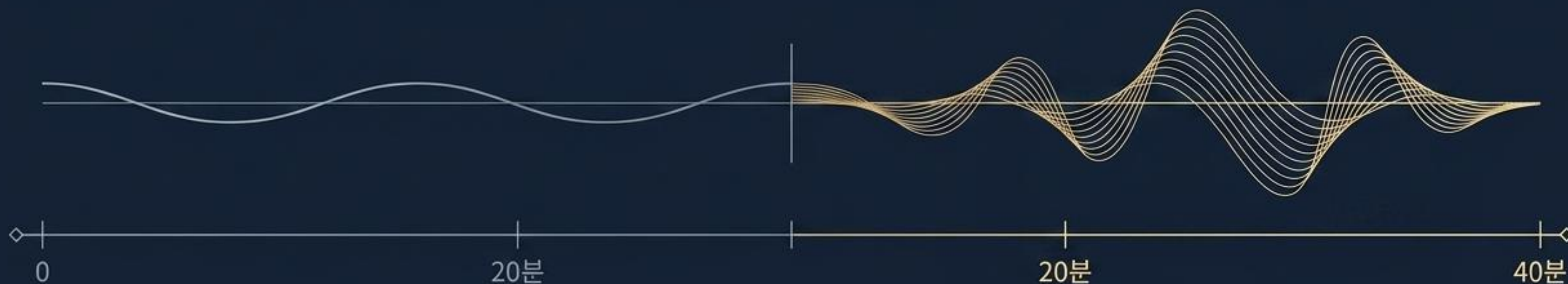


담배 연구 및 분석
(직업)



KOLAS 품질 관리
(경험)

새로운 출발점, 퇴근길 차 안의 40분



[비움]
음악 청취.
하루의 스트레스를 씻어내는 시간.

[채움]
AI와의 음성 대화.
흩어진 생각을 털어놓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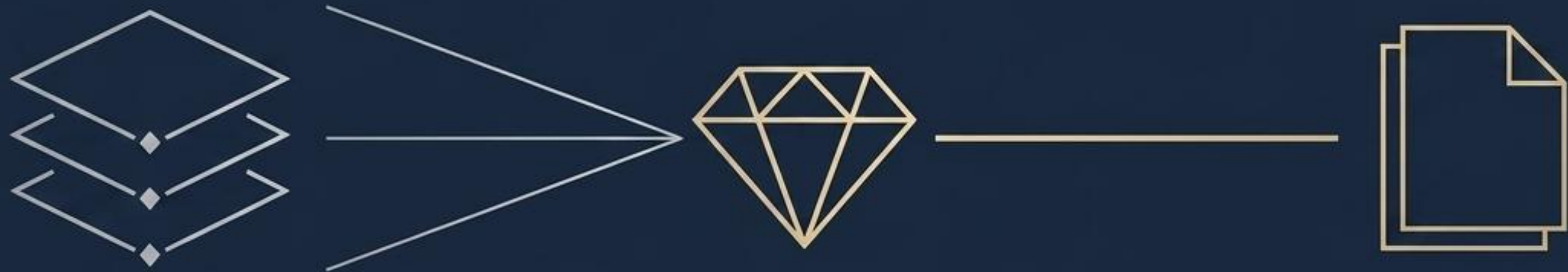
“새로운 시작은 너무 힘들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 이 질문에서 모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AI를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

	과거의 관점 (일반적 활용)	현재의 관점 (나의 철학)
[목적]	속도의 도구 (빠른 작업 완수)	사고의 파트너 (흐릿한 생각의 윤곽 잡기)
[상호작용]	단발성 프롬프트 지시	핑퐁 형태의 대화 누적과 심화
[결과물]	AI가 요약한 정답	나의 능력이 동반 성장한 새로운 통찰
[핵심 가치]	처리 속도	생각의 거울

대화가 아이디어가 되고, 아이디어가 실행이 되다

"AI는 작업 속도만 높여준 것이 아니라, 흩어진 생각에 구조와 방향을 부여했습니다."



1. 축적된 과거 경험과 자료

2. AI 파트너의 생각 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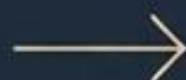
3. '모두의 창업' 제안서
1일 만에 완성

전 국민 AI 활용 대회 공모전 참가

아이디어의 구체화: 자격증 AI 학습 플랫폼



국가기술자격증 (기사 등)
합격의 본질은 '반복을 통한
암기와 이해의 내면화'이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존재함.



'말하고 피드백 받는'
AI 기반 반복 학습 플랫폼 구상.

국가자격증 AI 반복 학습 루프 (The Resonance Learning Loop)



1. 내가 읽고 말한다 >

2. AI가 피드백을 준다 >

3. 다시 말한다 >

4. 머릿속에 각인된다

흩어진 경험들이 하나의 별자리가 되다

제각각인 것 같았던 과거의 조각들이 AI라는 선으로 연결되어 완벽한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목표는 작아도 됩니다. 쌓이면 크게 됩니다.

오늘의 퇴근길 40분도, 그 위대한 쌓임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재료와 AI라는 사고의 파트너로,
당신만의 별자리를 그려보세요.